

우리는 가족!

가족이란 단어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다.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가지 의미가 떠오른다. 사랑, 행복, 애정, 용서, 희생, 배려, 조건 없는 나눔, 그리움 등...

우리는 마리아 가족이다. 마리아니스트가 되기로 봉헌하려 할 때, 난 가족이란 단어가 가장 마음에 다가왔다. 마리아 가족의 일원이 된다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이 끼칠 정도로 좋았다. 우리는 마리아 가족을 두 창립자들(복자 샤미나드 신부님과 가경자 아델 수녀님)의 은사와 함께 살아가기로 우리의 어머니 마리아께 봉헌한 남녀 수도자들과 평신도들로 이루어진 전 세계적인 가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MLC 세계 총회에 처음으로 참가했을 때, 단지 마리아니스트라는 이유 때문에 순식간에 마치 가족처럼 가까워지는 것에 놀라움을 느꼈다. 마리아 가족의 특징인 환대성을 몸소 체험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의미도 갖고 있으며, 오늘날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가족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이혼이나 또는 함께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가족간의 다툼 등... 이것은 사회 무질서와 심지어 폭력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한국 MLC는 다음과 같은 도전 과제를 안고 있다.

- . 젊은이 MLC 양성
- . 기존 마리아 가족의 노령화
- . 냉담자들의 증가

이러한 문제점들은 현대 사회의 일반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그 해결책을 찾아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족 정신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남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한다. 예를 들어 어떤 자매님이 몸이 너무 아파 공동체 모임에 빠졌을 때, 아무도 왜 오지 않았느냐고 안부 전화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소외감과 외로움을 느끼게 될까?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가족간의 연대감은 서서히 무너져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자주 연락하고,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현하며, 슬픔과 기쁨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보호아래 진정한 마리아 가족이 될 것이며, 더욱 매력적으로 변모하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사랑과 가족간의 강한 유대감에 끌리기 마련이다.

현재 한국 MLC에 가장 어려운 점은 젊은이들을 양성하는 것이다. 집안의 번성은 새로운 아기 탄생에 달려있다. 이것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아직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다. 여러분의 생각은?